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5. Vol. 312

기획특집_ 군민의 건강, 공중보건이구 구석구석 책임집니다



75세 이상 부모님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받으신다면?

부모님들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이렇게 살펴주세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시면, 전날부터 접종 3일 동안
매일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세요

접종 전날~접종 당일 아침

- 건강상태(발열 등) 확인해드리기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미리 준비해드리기
- 예방접종 시간, 장소, 교통편 확인해드리기

접종 이후 (3일 동안 매일)

- 접종 부위에 부기·통증이 있다면 마른 수건 대고 냉찜질 해드리기
- 발열, 근육통, 몸살 등으로 불편하시면 해열진통제 드리기
- 이럴 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의사 진료 받기
 - 48시간 이상 접종 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고 진통제 효과가 없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그래도 불안하시거나 다른 이상 증상이 있으시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누리집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 함께 살펴보세요.

희망양양

- 04 기획특집_ 군민의 건강, 공중보건역가 구석구석 책임집니다
- 08 이슈앤피플_ 공립 이숍어린이집 최종희 원장
- 11 마을가는 길_ 강현면 중북리
- 14 맛있는 양양여행_ 양양의 독특한 토속음식과 음식언어



공립 이숍어린이집 아이들
(손양면 가평리 유채꽃밭)

의기양양

- 16 YANGYANG NEWS
- 19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모내기
- 20 의정소식_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22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낙산사 오봉산 자락에는
냉천이 있다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12호

| 발행일 2021년 5월 3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omtom777@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군민의 건강, 공중보건이 구석구석 책임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공보건 분야 중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이다. 특히, 현재 방역 역량을 지탱하고 있는 그물망의 기초일 뿐 아니라 차후 감염관리를 포함한 공공보건 발전의 핵심인력들이 있는 곳이다. 그 중 공중보건의는 기초 검진부터 진료, 상담까지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사실상 마을의 주치의로 통한다. 우리 군에는 최근 배치된 신규 및 전입한 7명을 포함해 현재 총 14명의 공중보건의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사

의료 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건지소 자체는 의료취약지에 만들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해당 지역의 유일한 의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중보건의는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농·어촌 지역 보건소에서 군 복무 대신 3년간 복무한다. 양양군 보건소와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그들은

내과·안과·치과·한방 진료 가능

보건소는 치료 위주보다는 질병과 감염병 등의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감기, 소화불량, 변비, 각종 물리치료, 가벼운 피부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의 기초 검사가 가능하다. 공중보건의가 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고령인 농촌 어르신들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해 관련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약물 처방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일반 진료 외에도 전공의가 상주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의사이다.

현재 우리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총 14명으로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 4명(한의과)과 전입온 공중보건의 3명(의과 2, 치과)이 보건지소에 새로 배치되었다. 보건지소에는 일반 내과와 한방을 전공한 공중보건의가 주로 배치돼 있으며, 보건소와 현남면 보건지소에는 치과, 손양면 보건지소에는 안과 전문의가 근무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 진료가 가능하다. 지역 내 안과가 없는 가운데 손양면 보건지소에는 안과 전문의가 있어 안질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또한 치과의가 있는 보건소와 현남면 보건지소에서는 스케일링, 발치, 불소도포 등이 가능하다. 다만, 현남면 보건지소에는 치위생사 인력이 부족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보건소로부터 인력파견을 받아 정기 예약을 통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의과 공중보건의는 각 보건지소마다 상주하고 있어 언제든지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로 무릎, 허리통증, 어깨 결림, 손목·손가락 통증 등의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침 시술 등을 해드리는 한방진료는 인기가 좋

다. 교통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 주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마을 건강 책임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는 공중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예방접종이다.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자체 보건소 보다 영유아 예방접종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매해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한 책임지고 있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마을 곳곳을 방문해 운영하던 질병 예방 교육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으나, 교통시설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들을 위해 화상으로 원격 진료를 하고 처방 약을 직접 전달하는 등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 구석구석의 의료공백을 채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중보건의들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

구분	진료분야	전화번호
양양군보건소	의과 치과	033-670-2550 033-670-2537
서면 보건지소	의과 한의학	033-670-2361
손양면 보건지소	의과(안과) 한의학	033-670-2362
현북면 보건지소	의과 한의학	033-670-2363
현남면 보건지소	의과, 치과 한의학	033-670-2564
강현면 보건지소	의과 한의학	033-670-2566

지난달 시작한 만 75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보건지소를 비워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한방진료는 기존대로 가능하며, 내과 등의 진료는 당분간 진료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인사드립니다

현북면 보건지소 권평 공중보건의(한의학)

Q. 이번에 새로 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마친후 4월 12일 자로 양양으로 근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는 양양은 공중보건의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오시는 환자분들을 성심성의껏 진료하고,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보건지소에서는 어떤 한방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지소는 평소애 허리, 목, 무릎, 어깨, 손목 등 근골격계 통증으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한방 진료는 침 시술과 물리치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한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방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

서면 보건지소 **정희재** 보건지소장(의과)



Q.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보건지소의 상황은?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못 하고 있고, 진료는 변함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전국 단위의 생활치료센터 등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꾸준히 파견도 가고

있어요. 또 파견을 나간 다른 보건지소에 대신 진료를 하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선별진료소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서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2019년부터 서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따고 처음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라 두렵기도 했지만, 조금씩 경험이 쌓이고 스스로 공부도 하다 보니 3년 차인 지금은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파견이나 휴가 때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미리 전화를 드려서 제 일정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Q. 주로 어떤 분들이 보건지소에 찾아오시나요?

대부분이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처방을 받습니다. 봄, 가을로는 감기 증상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잦고, 여름철에는 벌레나 벌 등에 쏘여서 오시기도 합니다. 관광객들도 찾아오시고요. 가벼운 소화기 질환 등은 진료가 가능한데,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만성질환이 악화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가 가능한 곳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건강검진을 받고 오신 분들이 검진 결과를 자세히 알고 싶어서 상담해오시기도 합니다.

Q. 양양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양양에는 입원이 가능한 3차 병원이 없어 강릉이나 속초까지 가야 할 만큼 의료 소외지역입니다. 특히,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좋지 않아 긴박한 경우에는 장비도 없고, 전문적이지도 않아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반면,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보건지소로 오시면 보다 짧은 주기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혈압은 계절이나 심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당뇨 또한 식습관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상황에 맞게 처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만성질환은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좀 더 세밀한 관리를 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행복이 양양을 더 행복하게



양양에서 26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최종희 원장(공립 이솝어린이집)이 지난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보육환경개선과 나눔을 실천하며 공공 보육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 개인의 업적을 넘어 양양의 보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26년 오직 한길, 보육종사자로 앞만 보고 달려온 최종희 원장을 만났다.

보육을 통해 배우며 성장 중

봄날 병아리처럼 재잘대는 어린이집, 최종희 원장은 매일 아침 등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뒤늦게 축하 인사를 전하자, 운이 좋아서 받은 거라며 부끄럽다는 듯 수줍게 웃는다.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26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

나가면서 얼떨떨하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큰상을 받아 기쁘고 뿌듯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아직도 계속 배우며 성장 중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보육 시설들이 위기를 맞았다. 아이들의 등원 중단으로 텅 빈 어린이집에서 최 원장은 걱정이 많았다. 인생의 절반을 보육 일선에서 보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생

각해보니 아이들의 각 가정도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가정연계 맞춤형 온라인 보육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특히 올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원생과 학부모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독감과 코로나19의 차이점 알기, 생활 방역수칙 정보, 코로나 극복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육을 넘어 지역과 소통하다

최종희 원장은 아이들을 위한 보육환경 변화에 맞춰 늘 발 빠른 대응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양양군 최초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운영, 2019년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보육의 질적 개선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강화로 야간 보육이 필요한 원생들을 위한 취약보육도 운영 중이다.

더불어 지역과 소통하는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참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부터 지역축제에서 영유아 자전거 대회, 재롱 발표회 등을 열어 원생과 학부모의 지역사회

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양양 관내 4곳의 노인정과 결연으로 정기적인 경로잔치를 펼치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다. 무엇보다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아이들이 모은 동전을 해마다 이웃돕기를 위한 기부로 아이들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와 소통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종희 원장의 보육 나눔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피아이 국제보육봉사단 회원으로 아시아 저개발국 어린이집 짓기 운동에 동참하며 보육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에 이르기까지 그 공을 인정받았다.



주부에서 보육 선두주자로 우뚝

최종희 원장은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스무 살에 고향 양양을 떠났다. 대학 진학과 직장 생활로 이어진 도시의 삶은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양양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졌고 언젠가부터 양양에 와서 사는 게 꿈이 됐다. 도시에서 2년간의 짧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20대에 귀향해 가정을 꾸리고 고향에 정착했다. 아이를 낳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90년대 중반, 당시만 해도 양양지역의 보육 시설이 열악하던 시기였다.

“15개월 된 아들을 봐줄 사람이 없어 친척이 운영하는 놀이방에 겨우 부탁을 해서 맡기고 직장에 다녔습니다. 마음속엔 늘 내 아이를 직접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대학에서 운영하는 보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놀이방을 열었습니다. 금세 정원이 찰 만큼 열심히 했죠.”

최 원장은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했던 터라 보육 관련 일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보육을 꿈꾸며

양양의 보육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육아통합지원센터’가 곧 착공에 들어간다.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지역 내 어린이집들이 통합 운영된다. 최종희 원장은 오랜 시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늘 공공 보육에 대한 꿈을 꾀왔다. 보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이와 부모, 교사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 보육전문가의 길을 걷기 위해 뒤늦게 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석사과정을 거쳐 지금은 박사과정 중에 있다. 늘 변화하고 발전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 원장의 공부는 끝이 없다. 그동안 쌓은 보육지식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 과정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매번 꿈을 향한 도전이 평범한 주부에서 지역 보육의 선두주자로 앞장서게 한 원동력이 됐다.

가 함께 행복한 공공 보육의 꿈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양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이익이에요.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보육환경이죠. 그러려면 인적 자원이 중요합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면 우리 지역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이 보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던가. 양양은 아이들의 보육을 통해 온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최종희 원장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강현면 중복지리

정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웃는 마을
다육이 키우며 한층 달라진 마을의 풍경
예쁜 꽃길 따라 힘차게 걸어오는 희망

봄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겨우내 비어있던 들판에 어떤 꽃이 피고, 헐벗었던 나뭇가지에 어떤 빛깔의 잎들이 돌아 날지, 그 강인한 생명력에 또 얼마나 놀라게 될지! 강현면 중복지리가 그런 마을이었다.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떠나고 새로운 일도, 특별한 일도 없이 계절이 멈춘 곳. 하지만 몇 해 전부터 마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물레방아와 마을 심터가 생겼고, 곳곳에 꽃과 나무와 다육이 화단이 늘어가면서 한층 생기 있고 정겨운 마을이 되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새 계절을 일구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육이와 함께 쑥쑥 자라는 마을

중복리 표지석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길은 어느 시골 풍경과 다름없이 한가롭다. 집집마다 담장이라고 할 것이 없어서 밖에서도 그 집의 뜰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것이 마치 낮선 방문객을 스스럼없이 환영해 주는 것 같다. 어느 집 뜰 안에서 꽃과 나무와 크고 작은 화분들 속 다육이가 사이좋게 따스한 봄볕을 쬐고 있다. 평화롭고 다정한 풍경에 기분이 말랑말랑해진다.

중복리는 언뜻 보기에 작고 조용한 마을이지만, 2017년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부터 시작해 2020년에 도약마을로 선정되면서 ‘복지로 행복한 중복리, 문화로 소통하는 중복리, 꽃길따라 중복리’라는 마을의 비전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의 경관을 가꾸고 마을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마을 사업의 초석을 다져준 것이 바로 ‘다육식물(다육이)’이다. 마을사업의 하나로 다육이를 키워보기로 뜻을 모은 주민들은 전문가를 섭외해서 다육이 재배방법을 익히고 마을 곳곳에 다육이 가로 화단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지금은 집집마다 다육이 화분이 없는 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다육이는 각 가정의 건전한 여가생활, 마을 어



르신들의 정서 안정과 치매 예방이라는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다육이를 소재로 조산초등학교와 회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사랑 체험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다육이 심기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식물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 김극수 이장은 무엇보다 세대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올해는 강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다육이를 매개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선정되어 5억 원을 지원받게 된 중복리는 380평의 대지를 매입하고 ‘다육문화센터’ 건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앞으로 그곳에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다육이’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미래를 꿈꿔본다.



백가지 마을 일도 함께 맞들면 낫다

6년 전부터 마을 이장직을 수행해 온 김극수 이장은 예전보다 발전하고 성장한 마을의 모습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우리 마을이 이전에는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어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웠죠. 이장을 맡으면서 중복리를 깨끗하고 잘사는 마을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지금은 강현면 내에서도 예쁘고 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산다는 것이 자랑이 되었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꽃길과 쉼터를

조성하고, 이름만 남아있던 옛 물레방아 터에 물레방아를 만든 덕분에 중복리는 제법 운치 있는 동네가 되었다. 김극수 이장은 이 모든 것이 마을사람들의 솜씨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중복리 전체 주민 수는 93명, 그중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30%를 차지한다. 북양양IC와 인접해 있어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펜션 단지가 형성되었고, 이주민의 수요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마을위원회 일원으로 활약 중인 김용연 씨와 문광호 씨는 각각 이주 5년 차, 11년 차 귀촌인이다. 울산에서 조선업에

몸을 담았던 김용연 씨는 은퇴 후 귀촌을 계획하다가 처가
가 있는 중북리에 터를 잡았다.

서울에서 의류 제작과 운수업에 종사했던 문광호 씨는 평소
전원생활을 꿈꾸던 아내의 추진력에 어찌다 보니 양양살이
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중북리가 그리 낯선 동네가 아닌 김
용연 씨와는 다르게,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던 문광호 씨
는 아는 사람 없는 한적한 시골이 답답해 몇 번이나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마을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동안 점차 적응해 갈 수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서울이 복잡해서 싫다고 한다. 김용연 씨와 문광호
씨는 개인적인 이득보다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이장을 도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열성을 다한다.

이처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마을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덕분에 목공, 용접, 구조물 설치,
다육 재배 등 마을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외부 인력 없이 마
을 안에서 모두 해결하고 있다. 김극수 이장은 자신의 뜻을
잘 따라 주는 주민들이 고맙다.

모두의 아름다운 정원, 중북리

중북리는 ‘다육이와 원예를 접목한 정원이 아름다운 마을’이
라는 특색을 단계적으로 갖춰가고 있다. 주민들이 가꾼 꽃길
과 다육이 화단, 군의 지원을 받아 심은 150주의 이팝나무,
365일 내내 돌아가는 물레방아와 그 옆에 멋스러운 정자 등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물
레방아와 정자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녹아있는 공간이다. 마
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찾아와 식사도 하고 휴식
을 취하는 공공 쉼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
이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을 쉼터 옆에 자리한 작은 비석이 시선
을 사로잡는다. 조선해방기념비.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
된 기쁨과 감격을 담은 비석이다. 중북리에도 오래전 독립운
동에 앞장선 선조들이 있었고, 그 업적과 애국심을 후손에게
알리기 위해 안전한 곳에 옮겨 놓은 것이다. 과거라는 뿌리



“제가 마을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꽃 심으러 나와라,
나무 심으러 나와라 하면서 땀병에 고생을 많이 시켰죠. 그
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우리 마을은 작아도 단
합이 잘 됩니다. (웃음)”

김극수 이장은 정주민과 이주민의 융화를 최우선으로 생각
한다. 마을사람들은 김극수 이장이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을 하나로 모아 단합이 잘 되는 동네가 되었다고 입
을 모은다.



를 귀하게 여기고, 미래로 뻗어 나가는 중북리 사람들은 강
인한 생명력으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는 다육식물을 닦았
다.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평균 연령 6~70대인 중북리에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서 화합하며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가 되는 미래를 꿈꾼다.
앞으로 마을 사람들이 열심히 가꾸고 보살 핀 ‘중북리’라는
이름의 거대한 정원이 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아
로새겨지길 바란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의 독특한 토속음식과 음식언어(飲食言語) 전(煎)과 적(炙)에 담긴 양양의 음식문화

400여 년 전, 양양의 대표적인 국물음식 이었던 뚜거리탕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는 태산(泰山)이 평지(平地)가 될 만한 변곡점 없이 큰 변함이 없다. 여전히 식성(食性)은 습습한 국물보다는 맵삭하게 칼칼하거나 짭조름한 국물음식을 선호하는데, 별찬의 찬품이 많기보다는 국물과 건더기를 한 대접 담은 국물 류의 습식형(濕食形)음식을 오랜 세월동안 즐겨 먹고 있다. 이제는 '인'이 배인 탕인지, 제 아무리 건더기가 좋아도 밍송밍송한 듯 건성건성한 국물음식에는 호불호(好不護) 또한 명확하여 양양의 음식에는 같은 국물음식이지만 '샤브샤브'와 같이 습습하고 선(善)한 국물 맛의 음식이 거의 성행하지 않는다. '이래야 먹은 것 같다'는 양양 사람들만의 국물음식에는 이구동성으로 느껴지는 국물 맛 이외에 육감적으로 배인 '인'이라고 하는 흠족함이 들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습습의 지역 음식문화로 급속히 사라지게 된 독특한 음식이름을 가진 양양의 음식과 음식문화도 있다.



양양만의 독특한 음식이름의 배경

비록 양양지역을 포함한 영동과 영서지역에서 보편적인 공용어처럼 쓰는 말(語)과도 같은 음식이름도 있기는 하지만, 양양만을 특정 짓는 발칙한 음식과 음식이름도 있었다. ‘몽생이, 버무리, 범벅, 투생이 부꾸미, 뚜데기, 적’이라고 하는 이름의 토속음식들이다. 마치 제주도 사람들이 감귤과 금귤을 ‘미깡’, ‘깡깡’이라 하고, 말(馬)고기를 ‘몰고기’라 하고 바닷고기의 한 종류인 옥돔을 ‘옥돔’이라 하지 않고 ‘생선’이라고 하듯 이름을 붙인 매우 독특한 작명법의 음식이름들이다.

이중에 몇몇의 음식이름은 양양의 고유한 음식언어(飲食言語)로 토착화된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독특한 음식이름의 특징적 배경은 제한적이고 고립된 삶의 자연환경에서 스스로 터득해온 ‘전래음식’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난해한 제주도의 음식이름 작명법과 다르게, 식재료 이름과 조리방법을 함께 조합한 ‘연관(聯關) 작명법’을 통하여 어떤 음식인지 얼추 가늠할 수가 있으며, 콩, 조, 기장, 수수, 밀, 옥수수, 감자와 같이 땅의 성질에 최적화 된 작물 재배의 우월성에 따른 독창적 음식의 발전 또한 독특한 지역 음식언어만의 특징적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음식과 음식이름은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민중문화와 함께 지역문화를 대변해주기도 한다. 국수, 칼국수라고만 하면 건더기가 없는 포괄적인 국수 음식이 되지만, 메밀이나 짬뽕 같은 식재료 이름을 붙이면 특정한 지역음식이 되듯 말이다.

‘감자전(煎)’과 ‘감자적(炙)’의 다른 점

이러한 음식이름의 대표적인 식재료는 감자, 옥수수, 메밀, 수수가루였는데,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식에 특정 이름을 붙인다. 재료를 따로 구분하거나 골고루 펼치지 않고 한꺼번에 섞어서 버무리거나 몽치듯 넣는 시루떡의 일종을 ‘몽생이’, ‘버무리’, 지역에 따라 ‘투생이’라고도 한다. 물론 주재료와 조리방법은 조금씩 다르다. ‘범벅’은 본래 시루떡의 종류가 아니라 삶은 감자를 으깨고 팔이나 콩을 넣고 되직하게 죽처럼 쑤어 만들던 ‘쑤죽’으로 이후에 떡의 일종으로 변형된 음식이다. ‘부꾸미’는 기름에 지진 떡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음식으로 ‘메밀전병’이 있으며, ‘뚜데기’는 양양을 비롯한 강원도만의 투박한 특징적 음식으로 수제비를 얇게 펴지 않고 몽툰몽툰하게 뜯어내는 음식으로 ‘빚는 음식’이 아니라 뜯는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 중에서 ‘적(炙)’이라는 이름의 음식은 본래 반죽에 된장이나 고추장을 풀고 기름에 구워서 말려 두었다가 피난길이나 먼 길을 떠날 때 비상식량이나 휴대용 간편식으로 먹던 떡의 일종이었다. 이후에 ‘전’이나 ‘부침개’로 변형된 음식으로 양양에서 ‘장전’, ‘장 부침개’라 하지 않고 여전히 ‘장떡’이라고 불리는 것은 ‘적(炙)’이라는 음식이 본래 ‘떡’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양양만의 음식언어인 것이다. ‘감자전(煎)’을 ‘감자적(炙)’이라고도 하지만 말이다. 점차 사라져 가는 양양만의 고유한 음식과 음식문화 그리고 독특한 음식언어도 양양의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근원이다. 글·사진 : 강원도 외식재널대표 황영철



양양군, 서핑해변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내장형 시계탑 설치

양양군이 주요 서핑해변에 서퍼들을 위한 키오스크 내장형 시계탑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한 시계탑은 서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양양군 대표 서핑해변으로 기사문·죽도·인구해변에 설치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당초 서핑활동 중 시간 확인이 어려운 서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단순 시간표시 기능만 탑재한 시계탑을 설치 할 예정이었으나, 서퍼들의 불편해소를 넘어 양양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해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 내장형 시계탑을 설치했다.

맑고 깨끗한 양질 수돗물 공급 정·배수지 일제 청소·소독

양양군은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청소와 소독을 실시했다. 이번 배수지 청소 및 소독 대상은 양양군 관내 양양정수장 내 배수지를 비롯하여 17개소이며, 지난달 초에 시작해 5월 7일 완료했다.

배수지 청소 및 소독은 수도법에 따라, 연 2회(상·하반기) 시행하는 법적사항으로 저수조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저수조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 제거,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세정 등을 실시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양양군 관광 명소, 불법 차박(캠핑)으로부터 지킨다!

양양군이 차박(캠핑)의 주요 이용지역을 대상으로 6월까지 차박금지 홍보와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그동안 불법 차박에 대한 단속 근거가 미비하고, 장소마다 담당부서가 달라 실질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위 장소별 담당부서의 계도와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날씨가 따뜻해지면 늘어날 차박에 대비해 공공주차장, 하천변, 해변, 방파제 등 차박 불법행위 장소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간판을 설치하여 차박금지 홍보·계도를 진행하고,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군 관광과를 비롯한 관련 실과, 읍·면 합동으로 불법캠핑 행위 단속 및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CCTV를 통한 불법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차 계도조치 후, 조치 불이행자에 대해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을 할 계획이다.



양양군, 「2021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본격 추진

양양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70억 원(국비 49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년차인 올해는 지난 3월 22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추진단의 실무추진협의회를 매주 1회 정례화하여 개최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중앙계획지원단의 수시 자문회의로 사전심사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중앙계획지원단의 원활한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양양군 청사 내, 미술작품 전시회 「고맙다 양양展」 선보여

양양군이 군 청사에서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작은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고있다.

이번 전시회는 양양군의 우호교류단체인 서울YMCA 소속 한국미술협회 회원 5인의 작품으로 총 22점을 지난 4월 15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양양군청 청사 내 전시한다. 참여 작가는 김성근(개인전 14회, 국제 아트 페어 20여회 참가), 박운주(개인전 8회, 서울 현대미술시드니 교류전 등 참가), 이강화(개인전 40회), 최수현(개인전 5회, 단원미술대전 대상), 황정재(개인전 21회) 화백 등 총 5명이다.

군은 청사 2층, 3층 복도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전시레일을 설치해 작품을 전시하고, 15일 오후 5시 서울YMCA와 참여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고맙다 양양展'에 들어갔다.



4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은어 포획 금지

양양군이 은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달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은 은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나선다.

군은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는 한편,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지기간 은어를 포획하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양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사업 1억1,500만원 투입

양양군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비할 때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114,760천원의 사업비를 확보, 태양광 103가구, 지열 5가구 등 108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는 그린홈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를 통해 시공을 희망하는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절대 안돼요!

양양군이 속초경찰서와 함께 지난달 21일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평소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해 평소에도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요인으로 대두되어 왔다.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 할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상시 단속과 계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스쿨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상습 불법주정차 △스쿨존 일대 고질적 위반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인도주행 등을 단속한다.

쓰레기 영상감시 장치 추가 설치... 무단투기 꼼짝마!

양양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구 총 6개 읍·면 각 1개소에 이동형 영상감시 장치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6년 고정식 카메라 5대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정식 카메라 39대, 이동식 카메라 13대 총 52대의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양양읍 관아길 4-26외 5개소에 이동식 카메라 6대를 설치한다. 쓰레기 영상감시 장치는 고화질의 녹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빛 감지 센서, 음성경고 등의 기능이 탑재된 앰프와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무단투기 시도가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하여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 음성을 송출함과 동시에 영상을 녹화한다.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1967년



1989년



현재

모내기

- 오대환 -

그 때는

부엌에 부지깽이까지
들녘으로 불러나갔다.

온 동네가 품앗이로 들에 가야 사람구경
북 장단에 못줄 띠며
구령 따라 허리 펴고,

바가지 아욱국에 꿀맛 같은 새참 먹고
막걸리 한 사발에 고단함 달래가며
해를 풀까 넘기고
앞이 안 보여도
날렵한 손 맵시로
모내기를 말끔하게 끝냈었지.

이제, 북소리는 사라지고
노래대신 기계소리
그 많던 일꾼들 온데간데없건만
지금 그 들녘에
모내기가 한창이다.

온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며
손으로 모를 심던 시절은 추억이 되고
이제는 기계가 모내기작업을 수월하게해주고 있지만
풍작을 기원하며 모를 심는 정성스런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올 한해 우리군 모든 농가들의 풍년을 기원합니다!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개 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4월 26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귀선, 간사 김우섭)에서는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4월 29일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김의성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였다”고 말했다.

양양군의회,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지난 4월 13일 양양군 수어통역센터와 본회의 수어통역 방송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청각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통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함이다. 4월 22일 제25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임시회 때마다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홈페이지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다.

김의성 의장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함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의원들은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125만톤 이상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한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는 주변국을 비롯한 인류의 미래와 환경을 고려치 않은 반인륜적인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뜻을 모았다.

본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김귀선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해양방류가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의 해양생태계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낙산사 오봉산(五奉山) 자락에는 냉천(冷泉)이 있다



조선 중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및 《여지도서》의 양양편에 냉천(冷泉)은 “부 북쪽 15리 오봉산 아래에 있다”고 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여자로 변해 덕녀(德女)란 이름으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함께 웃으며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고려후기 문인 정추(鄭樞) 선생의 시(詩) 한수의 번역문을 소개하면,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원효가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네. 누각에 올라 상사(相思)의 꿈을 맺고자 한다면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盞)질하리라”란 글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냉천(冷泉)은 양양군 강현면 답리(畓里)에 있는데 1970년 이전에는 맑은 샘이 용출하여 냉정터(冷井址)라 불렸으며, 눈에 생기는 눈병도 이 물에 씻으면 깨끗이 낫고, 신경통과 피부병에도 특효라 해서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전한다.

냉천은 물이 찬 샘을 의미하며 온도가 20℃~25℃ 이하의 물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냉천에는 초정(椒井)·약수(藥水) 등도 속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 각지의 각 종류에 따른 냉천수 지역의 위치뿐만 아니라 물맛과 병의 치료 사이의 관계 등을 소상히 밝혀 놓은 사실로 볼 때 당시 일반 백성들이 병 치료에 냉천요법(冷泉療法)을 널리 이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15권, 청주목(淸州牧) 항목에 “청주(淸州) 초수(椒水)는 그 맛이 초와 같고 냉하며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 일찍이 <세종> · <세조>가 행차하였다”고 적혀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담리의 냉천은 지금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샘물이라는 것 이외의 특징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목욕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식수에 대한 위생관념이 약한 시대라서 샘물에 몸을 씻고 샘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각종 질병(疾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이 냉천에 관음보살과 원효대사가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인근에 낙산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만남의 의미가 속세의 인간들에게는 더욱 감미롭다. 결국 냉천은 관음보살과 원효대사의 만남의 장소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냉천 위치도

오봉산(五峯山)은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흥망을 지켜보았다. 관음보살의 화신인 덕녀(德女)가 벼를 베던 가을 들녘에는 벼가 가득하고, 해가 오봉산을 비추면 마치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하다.

◆ 정추(鄭樞)의 시 냉천

海岸山從赫世前(해안산증혁세전) / 비닷가 산이 밝은 세상 되기 전부터 왔는데,
 幾看興廢迄今年(기간흥폐홀금년) /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성쇠를 보았다.
 秋涵一野亞紅稻(추함일야아홍도) /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日照五峯生紫烟(일조오봉생자연) /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른다.
 德女故居莎覆砌(덕여고거사복체) / 덕녀의 옛터엔 잔디가 섬들을 덮었고
 曉公遺迹樹連天(효공유적수연천) /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숲이 하늘에 연했다.
 登樓凝結相思夢(등루의결상사몽) / 누에 올라 상사 꿈을 맺고자 한다면
 夢裏還應酌冷泉(몽이환응작냉천) /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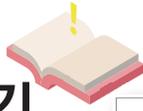
◆ 冷泉故居 (附：子益 金昌翁)

祥光九峰下(상광구봉하) 모든 산봉에 서광이 비추니
 秋色老忍草(추색로인초) 가을은 깊으나 풀은 견디네.
 何緣酌冷泉(하연작냉천) 어떤 인연에 냉천을 마셨나
 有美刈紅稻(유미예홍도) 미녀는 익은 벼를 베는구나.
 須知色是空(수지색시공) 비록 색을 알려함은 부질없는 일
 淨染不二道(정염불이도) 정도에 물들은 두 길이 아니로다.
 觀音豈摩登(관음기마등) 마천에 오르신 관음을 어찌 보리까?
 羅什還曉老(라십환효로) 나십은 돌아가 없고 원효도 늙었네.

◆ 襄陽府使 鳴巖 李海朝 『襄陽別曲』第27詠 冷泉故居

觀音化阿難(관음화아난) / 석가의 제자가 된 관음보살이
 天冶幻枯槁(요치환고고) / 가을이 되어서 예쁘게 변했네.
 曾不散天花(증불산천화) / 눈이 내리기 이전에
 而來刈田稻(이래예전도) / 논에서 벼를 베누나.
 高僧亦解佩(고승역해패) / 번뇌에서 벗어난 원효대사가
 泥絮乍顛倒(니서사전도) / 넘어져 가슴에 진흙 묻었었네.
 尙學羅裙色(상학리군색) / 훌륭한 부인은 학문도 높는데
 萋萋冷泉草(처처냉천초) / 냉천에는 잡초만 무성하구나.





이달의 책이야기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알렉스 룽구 지음 | 수오서재 | 2021. 4월



독일에서 온 의식성장 리더 알렉스 룽구. 자기계발을 넘어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철학적, 경험적 안내서! “행동하지 못할 때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아에 대한 무지가 문제입니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 직접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은 지혜, 자신만의 통찰로 빚어낸 자아확장 · 의식성장의 교과서! 23만 구독자가 열광하고 ‘정주행하게 만드는 유튜브’로 명성이 높은 ‘의식성장 리더’ 알렉스 룽구. 그는 ‘우리는 왜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가, 왜 항상 실패 사이클에 갇혀 있는가?’ 의미 있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철학, 심리학, 영성, 인문학, 과학 분야의 탐구를 넘어 내적 관찰을 통해 성장과 깨달음의 길을 걷고 있다.

책 속 한 구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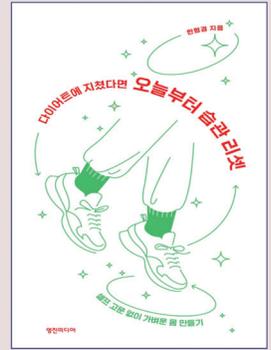
■ 우리는 ‘끝’을 위해, 주말을 위해, 퇴근을 위해, 내년을 위해, 10년 후를 위해,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즉, 우리는 8시간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카페 카운터 뒤에서 커피를 준비할 때, 고객과 미팅할 때, 자신의 자아확장 기준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실현할 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아확장 기준의 가치, 목적, 목표, 전략, 행동은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순간을 어떤 형태로 온전한 존재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_250쪽, 실행2, 행동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다이어트에 지쳤다면 오늘부터 습관 리셋

한형경 지음 | 영진미디어 | 2021. 3월



하나만 바뀌도 스프룩 감량된다!
다이어트, 지쳐서 못 하겠다면 습관 리셋만 하세요

덴마크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1일 1식, 저탄고지 등 모르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고 열심히 했지만 어째서인지 결국 요요 현상이와 버렸거나, 성공했어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강박증을 갖고 사는 다이어터들이 많다. 저자는 이들을 위해 습관 리셋이라는 딱 하나의 해답을 알려준다.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을 짚어주고 그에 맞는 습관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 다이어트는 어렵지 않다. 마냥 허황된 것도 아니다. 지금 바로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한 방법이다.

고수의 협상법

신용준 지음 | 리텍콘텐츠 | 2021. 4월



인생의 승부처에서 삶을 승리로 이끄는 협상비법

‘고수의 협상법’은 인생 전반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협상 기술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전 비즈니스 사례 위주로 다루고 있다. 우리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단순히 물건 흥정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까지 인생 자체가 협상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책에서 언급한 살라미 전술, 더블 바인드 기법, 레드 헤링 기법과 같은 협상 기술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승부처에서 마주하는 협상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글,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관사정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상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설악환경산업(주)	1명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원	08:00~17:00 (토요일격주)	시급8,720원
	1명	대형암롤운전원	08:00~17:00 (토요일격주)	연3,000만원
(주)성심레미콘	1명	인사·노무관리자	08:00~17:30 (주5일)	연2,600만원
	1명	생산실 기계운전원	08:00~17:30 (주5일)	연2,600만원
영광전기(주)	2명	전기 현장시공원	08:00~17:00 (주5일)	월200만원 이상(협의)
(주)신우그린 (설해원)	10명	골프장 코스관리직	07:00~17:00 (격주5일)	연2,800만원
모정의집	1명	사회복지사	08:30~17:30 (주5일)	월188만원 이상
	1명	조리사	08:30~17:30 (주5일)	월188만원 이상
노인요양원 성산사라마을	1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211만원
희망실버하우스	1명	요양보호사	교대근무	월183만원 이상(협의)
강릉취가두부	1명	두부생산직	08:30~17:30 (주5일)	월190만원
낙산요양원	1명	간호사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이상

2021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1. 5. 1. ~ 5. 31.(월)
- 대 상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일반신고, 모두채움신고)
- 신고방법 및 장소 : 전자신고(www.wetax.go.kr)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세무서-지자체 모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 만 65세 이상 노령자, 장애인 등 신고 지원을 위해 [도움창구] 운영
 -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안내문이 일괄 발송됩니다.
- 신고납부 절차(공인인증서 필요)
 - ① 홈택스(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 ②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소득세 신고
- 문의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148)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 중복지원 불가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중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 (농어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에 포함
- 지원내용 : 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 ※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 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가구기준 : 2021. 3. 1.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신청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온 라인 : 2021. 5. 10.(월) ~ 5. 28.(금) 22:00
 - 복지로(www.bokjiro.go.kr)
 - 현장접수 : 2021. 5. 17.(월) ~ 6. 4.(금) 18:00 / 읍·면주민복지부서
- 신청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 ①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②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본인 신고서(소득(매출)감소신고서 작성)
 - ※ 본인 작성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지원 여부 결정
 - ※ 소득감소 증빙자료 (예)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 지급기간 : 2021. 6. 25.(1차) / 2021. 6. 28.(2차) 지급 예정
- 지급방법 : 금융기관 계좌 입금(신청 시 제출 계좌)
- 문의 : 양양군청 복지과 및 읍·면 주민복지부서

희망복지지원 ☎670-2265 / 통합조사관리 ☎670-2158 / 양양읍사무소 ☎670-2610
서면사무소 ☎670-2339 / 손양면사무소 ☎670-2636 / 현북면사무소 ☎670-2392
현남면사무소 ☎670-2403 / 강현면사무소 ☎670-2415

정치인 등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인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한다면?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자수를 한다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를 목격했다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 및 제보해주세요.

신고방법1 ☎ 선거콜센터 1390
신고방법2 📱 선거정보 모바일앱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본인 또는 보호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을 돕겠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 가족이나 기존에 돌봄을 제공하시던 분(요양보호사등)의 확진으로 평소에 받으시던 서비스가 중단되신 분
- > 자가격리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
-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받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노인, 장애인
- >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에서
 - > 장보기 및 식사지원
 - >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 >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 > 일상생활 및 활동지원 등 장애인 활동보조
- 시설에서
 - >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을 대신하여 돌봄 제공
 - > 요양보호사 등이 코호트격리 시설에서 돌봄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3-257-5785) 혹은 이메일 (kuebanq@gangwon.pass.or.kr) 제출

문의 강원도사회서비스원 ☎ 033-248-5707



우리 일상에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방역은 '지금처럼'

다시, 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야외 활동 방역수칙

기본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환기, 소독 자주하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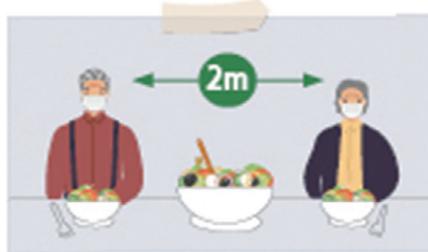
야외활동 방역수칙



- 1 함께 사는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기
- 2 마스크 쓰기 어려운 과격한 활동 자제하기



- 3 구호, 노래 등 침방울이 튀는 행동하지 않기
- 4 공용공간(공중화장실 등) 사용 최소화하기



-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하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의심증상이 있다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1339에서 상담 받으세요